



육계산업의 계열체계

본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가공생산 전략”이란 주제로 한국무역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가금학회 아·태 제 5차 학술대회기념으로 발간한 「한국의 양계」에서 박영인 박사가 발표한 “육계산업의 계열체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서언

한국육계산업은 1960년대에 육용전용계가 도입된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계산물의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수입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사육은 끊임없이 늘어나 기술이 개발되고 사육규모도 차츰 커져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기업경영적 산업체계를 필요로 했던 구조개편 시기를 놓치고 계속하여 전통적인 독자경영체계에 안주함으로써 육계산업은 생산과 유통, 가격과 상품성,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면에서 시대에 적응치 못하는 투기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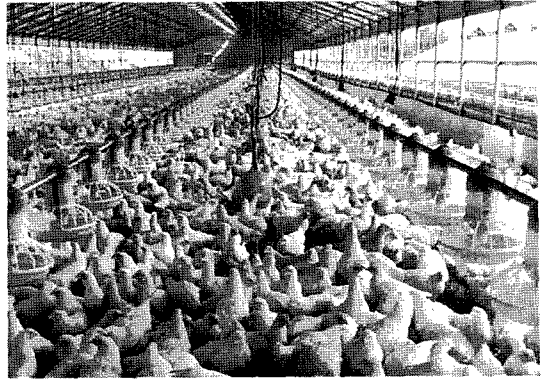
특히 종계수입에서 계육소비에 이르기까지의 10여단계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독립경영하여 수급, 가격, 품질의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육계산업 조직의 현대적 체계인 수직통합 방식이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된 것은 1960년대이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치 않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학계의 규범적 연구와 권장, 사육자 협회의 관심과 교육 및 정부의 부분적 지원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통합주체의 적극성과 사육주체의 이해증진으로 마침내 통합체계로의 경영구조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최근의 UR협상 막바지 과정에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분명해짐에 따라 국제경쟁력 배양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육계산업 및 관련부문은 통합체계의 정착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수직통합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국육계산업의 수직통합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변여건 및 금후전망까지도 통찰해 보고자 한다.



산업에서 세계의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2. 육계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가. 무역자유화와 UR 협상

18세기에 서구제국에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이 국익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추세는 전세계의 모든 경제부국으로 번졌고, 제2차대전 이후 1948년에 형성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6년에 시작한 GATT의 다국적 협상은 상품 이외에 서비스 부문에까지 확대 취급함은 물론, 상품부문에서는 그동안 예외로 다루어오던 농산물도 포함시켰다. 이 UR 협상은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당초 예정된 1990년의 시한내에는 타결을 보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유무역은 강화되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화는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육계산업도 한 국가의

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의 절박성

현대는 격심한 경쟁속에서 발전해 가는 시대이고, 육계산업도 국내·외적인 여러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구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필요성은 매우 절박하기만 하다.

결국 어떻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즉, 금후 계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면, 경쟁력이 있을 경우는 국내수요 충족은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하여 육계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을 때는 국내 수요의 상당부분이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육계산업은 사양화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의 기초는 생산성이다. 또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과 경제적 효율에 달려 있다. 기술 및 경제효율이 증대되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 시기 및 장소에 계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비로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산성 개념은 농장생산 위주의 횡적인 기술향상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생산성은 농장생산물 뿐 아니라 최종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횡적인 기술특화와 더불어 종적인 기능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육계산업은 이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대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정책적 보호에 의해 잔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제화 추세의 공개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그밖의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최적방법론을 찾는 젊은 세대의 등장

시대상황에 민감한 것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개방화의 물결을 몸에 익히면서 자란 젊은 세대이고, 그들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경영적인 감각이 우월하다.

육계산업의 기성세대는 1970년대 후반에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 그리고 개별경영에서 전체산업으로 그 관심의 방향을 돌렸어야 했다. 그러나 말로만 그러했을 뿐 행동에 옮기는 용기가 부족하여 수개월 사이에 병아리 값이 배로 뛰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에 생계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투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쟁력의 심화현상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30대의 젊은이들이고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적방법론을 찾으려 하고 한번 확신이 서면 즉각 추진하는 그런 발전세대의 경영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에 계열체계의 필연성을 절감

하고 이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젊은 세대이고, 그동안 경영구조 개선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한 결과 이제는 완전 계열화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3.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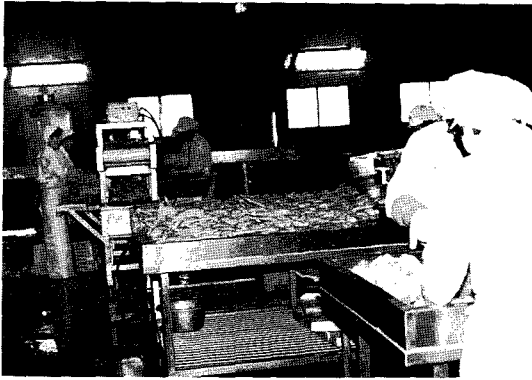
가. 규범적 통합권장에 대한 수용 분위기

한국 육계산업에서 통합체계가 처음 시도된 것은 육계종이 수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였고, 이는 미국의 1950년대, 일본의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이른감이 있어 결국 그 성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한창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1970년대가 적기였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1970년대 부터는 일반이론과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규범적 통합체계가 소개되고, 현실적으로 착수하기도 했으나 불신평조, 시장불안, 개발위험, 정책부실 등으로 이 체계의 활용이 지지부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산업의 관심은 차츰 높아갔고, 완전통합에 가까운 기업주도의 체계도 시도되었지만 이러한 기업의 수와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사육자의 소위 한탕주의 체질과 기업에 대한 불신이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아 통합체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만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산업주변의 상황변화가 급격하고, 특히 개방화의 위협이 엄습함에 따라 통합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며,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



해, 그리고 사육자는 자구책으로 통합체계의 특장인 기능분담, 즉 농민과 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생각해 보기에 이르렀다.

나. 통합주체의 의욕적 도전

통합체계의 2대 지주는 통합주체와 사육주체이다. 전자의 기능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맡아 사육부문인 1차산업 기능 이외의 생산자재, 도계, 가공부문인 2차 산업기능과 유통, 외식부문인 3차 산업 기능을 전담하는 것이다.

한국 육계산업의 통합체계가 부진한 지난 한 세대동안 통합주체로 등장한 것은 그 대부분이 종계를 가진 부화업체였을 뿐, 사료업체가 그 자체의 사업을 연계 확대하여 통합주체로 변신하지 않은 점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안이한 경영만을 바라던 한 시대의 산업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아주 달라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기업통합주체가 나타나는가 하면 몇몇 자재업체까지도 이에 합류하여 주체그룹의 의욕이 매우 도전적이다. 또 법적 협동조합, 사육자 주주인 회사형태 사육자와 기업인이 합작설립한 경영체 등 통합주체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다. 사육주체의 의식변화

농민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한국의 육계 사육자는 그 대부분이 규모나 수입면에서 일반 농민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먹거리(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진취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오랫동안 경영불안에서 취득한 투기적 기질이 알게 모르게 몸 깊숙히 스며있어 기존 육계사육자는 통합체계의 사육주체가 되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통합체계에 대한 사육자의 반응은 대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기존의 경영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불안하고 경영주도권을 빼앗긴다는 느낌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아 통합체계의 출현을 방관 내지 회의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통합체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육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통합이 신규농가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사육경쟁의 위협, 그리고 경영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자위방어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 또는 협동조합 체계의 사육주체가 되던가 아니면 독자경영체로 남던간에 전산업이 통합되어 경쟁력을 키우는 과제가 최우선임을 차츰 인식해 가고 있다.

라. 정부 자금지원

축산업 가운데 양계 부문은 정책우선순위에서 육우, 낙농, 양돈부문에 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특히 육계부문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다 시피하여 자유시장체제를 만끽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 육계통합에 관심을 보인 것은 1985년의 “닭 계열화 사업 촉진”시책이 처음이다.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농가와의 계약생산, 병아리 및 사료대 일부 지원, 생계의 수매를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정부는 이 시책을 지속하여 8개의 계열업체(기업체 6, 사육자 단체 2)에게 각각 2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도계장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등 통합 추진을 지원해 왔다.

UR협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1991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완전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업체당 용자 한도도 25억원으로 늘리고 각종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통합체계지원은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시책으로 이 체계의 조기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산업발전 협의

육계산업의 경영구조가 전통적인 독자경영에서 새로운 통합경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여러형태의 부작용과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부분통합을 모방한 사이비주체(예: 병아리/사료-사육-생계수거체계의 비전형적 운영)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통합체계의 정착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아 1989년부터 한국육계산

업발전협의회를 결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협의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육계산업의 통합 체계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육계 관련 각 부문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1991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존속한 이 협의회는 월례모임과 뉴스레터(월간 육계뉴스)의 발간을 비롯하여 세미나, 연구보고서 발간, 선진지 방문, 동남아 및 일본 육계산업 시찰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후 이 협의회는 통합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산업발전의 협의체 기능을 하도록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4. 수직통합의 전개상황

가. 통합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

통합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계약통합 즉,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주체의 이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통합주체는 통합체계에서 2, 3차 산업기능자인 동시에 통합경영자이므로 통합주체는 이 체계의 의사결정과 경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많은 사육자가 단합된 경영조직을 통하여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 협동조합의 경영기법 및 통합목적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주체는 이러한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통합체계를 착수해야 하고 사육주체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통합체계에 대한 사육자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64%가 이 체계를 선호하고 있다.

통합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 사육자의 44%가 스스로 계약사육자가 되었고, 51%는 계약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 63%는 통합주체와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66%는 독자경영 때보다 유리하다는 응답이다. 따라서 현재 사육자의 통합체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만족한 수준은 아니나 통합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표1. 통합체계에 대한 사육주체의 반응

질 문	응 답	비율(%)
참여 동기	스스로	43.9
	외부의 권유로	29.3
	기 타	26.8
계약조항 이해	충 분	51.2
	대 충	39.0
	기 타	9.8
통합주체와의 관계	동반자	63.4
	불평등	21.7
	기 타	14.9
독자경영 대비	유 리	65.9
	불 리	2.4
	기 타	31.7
금후계획	계 속	63.5
	상황검토중	34.1
	기 타	2.4

자료 : 육계산업의 계열화와 그 효과분석, 한국육계산업 발전협의회, 1990

나. 수평기능의 특화



육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계의 수평적 요소로는 종계, 부화, 사료, 약품, 기구,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부분 등이 있다. 이들 각 요소는 현재 상당한 수준의 특화와 동시에 비 특화가 공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종계는 수입 또는 국산원종으로 충당하며 부화장은 오히려 난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사료, 약품, 기구도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재부문은 상당수준까지 특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독립된 경영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가격과 품질의 문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사육자는 그 수가 줄고 규모는 커지는 경향이거나 아직도 독자경영이 지배적이고 생산성이 비교적 낮다. 특히 시설미비, 질병관리, 출하전의 절식문제 등이 남아있고, 인력난 때문에도 시설의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도계가공은 사육과 함께 가장 뒤진 기능부문으로 시설, 위생, 제품면에서 현대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생계상태의 위탁도계가 아직도 성행하고 냉각, 위생검사, 부분육, 가공계육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

표2. 육계관련 수평기능 수행업체수(개략)

기능	업체수	기능	업체수
종계장	230	사육	3,000
부화	180	도계	70
사료	60	유통	수만
약품	70	외식	수백
기구	50	(가맹점)	수천

자료 : 직접조사

도계품 유통은 슈퍼마켓 경로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재래식 노점 거래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도계이전에는 대부분의 생계가 상품으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부분육 유통과 콜드체인은 차츰 늘어나고 있다.

근래에 계육소비를 크게 자극하는 것은 외식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요리 이외에도 후라이드 치킨, 양념통닭 등이 외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양념통닭은 전국에 수백개의 본사와 수천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어 상당히 혼란한 상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평기능은 지금 특화정도가 부문간에 불균형이 있으나 주변여건은 이들 기능의 전문화(기술특화)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표2는 현재 수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 요소의 업체수를 개괄적으로 살펴 본 것이다.

다. 수직기능의 통합

기존 수평기능은 점차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독자 경영에서는 수평기능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다가 부분통합이 전개됨에 따라 차츰 통합체계의 한 요소로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완전통합의 수준에 이르면 모든 수평기능이 단일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표3. 주요통합주체별 통합상황 요약표

(1993년 1월 현재, ABC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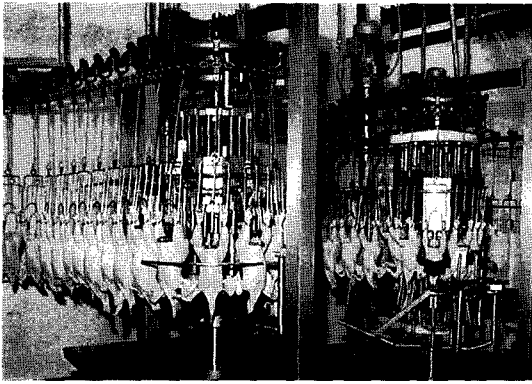
계열주체	종계	부화	사료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
BK	0	0	0	00	00	×	0	×
CH	00	00	0	00	00	00	00	0
CJ	0	0	0	00	00	×	00	×
DK	00	00	0	00	00	×	00	×
DS	×	0	00	00	0	0	×	00
DY	0	0	0	00	00	00	0	×
HI	00	00	00	00	00	00	00	0
HK	×	0	0	00	00	0	00	00
HR	00	00	0	00	00	00	00	0
SI	00	00	0	00	0	×	0	×
SK	00	00	0	00	0	×	0	0
SW	0	00	0	00	00	×	0	0
YS	00	00	0	00	00	0	00	×
YY	0	0	0	00	00	00	00	×

1993년 1월 현재 통합체계는 표3과 같이 14업체에 이르고 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3~4개 업체는 이미 완전통합에 가깝고 나머지는 부분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요소 가운데 사육과 도계부문의 통합 정도가 가장 높고, 종계, 가공, 외식부문의 통합이 낮은 편이다. 또 대부분의 통합체계는 기업주도로 되어 있어 사육자 중심의 통합 확대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수직통합체계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40%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는 1992년의 30%, 2년전의 15%에 비해 괄목 할 만한 신장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상위 5개 업체의 비중은 전국물량의 28%, 통합물량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라. 주요 계약조항



계약통합에서는 계약조항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의 권리, 의무 및 이해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초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관심과 시비가 많으나 얼마동안 경험하고 나면 상호의존과 신뢰의 공존관계임을 알게 된다.

한국육계산업협의회는 1990년에 대한 양계협회와 함께 “육계계열생산 표준계약서”를 제정 배포하여 통합계약에 기준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표준지침은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기간 및 수량, 자재의 공급 사양관리, 폐사와 사고처리, 자재의 임의처리금지, 출하, 사육자 보수, 사료요구율, 계사의 휴지기, 담보 및 보증인,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표4는 통합체계의 계약내용에 대한 사육농가의 반응이다. 일방적이며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육계사육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사육농가의 반응을 일반화하여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이 조사의 주요 조항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다만 폐사율은 절반 가까이 불리하다는 의견인 바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언제나 상호협의를 하여 변경해야 할

것이다.

표4. 계약내용에 대한 사육주체의 반응

(단위 : %)

항 목	농가에 유리	적 당 함	농가에 불리
사료 요구율	19.5	43.9	36.6
폐사율	4.9	48.8	46.3
사육자 보수	12.2	48.8	39.0
출하체중	9.8	68.3	21.9
계약보증	2.4	61.0	36.6

마. 통합주체의 비용절감 효과

육계산업이 통합체계로 전환하면 수평적인 기능 전문화와 수직적인 기능 통합 및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통합합리화에 의하여 비용절감, 상품성 향상, 소비촉진, 수급 및 가격안정, 그리고 산업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이론이다.

그중에서도 비용절감의 효과는 통합체계를 필요로 하는 첫째 명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인 분석이 1990년에 시도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표5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육계생산비의 단계별 절감효과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생계 17.8%, 도계육 24.5%, 요리계육 32.0%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 도계육 31.8%, 요리계육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통합체계는 개별경영체계보다 30% 이상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5. 단계별 육계생산비 절감가능성

단 계	통합(A)	비통합(B)	절감 가능성
			(B-A)
		원	%
생 계 1.5kg	1,211	1,474	17.8
도계육 1.0kg	1,452	1,924	24.5
요리계육 1.0kg	2,220	3,265	32.0

자료 : 육계산업의 계열체제와 그 효과분석,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1990

5. 금후의 전망

가. 완전경쟁지향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계산업은 바야흐로 통합체제를 지향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박차는 가하여 명실 상부한 통합을 구축하여 완전경쟁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독자경영은 부분통합, 부분통합은 다시 완전통합의 방향으로 개편,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통합이 지배하는 산업체제를 형성하여 통합주체와 사육주체로 기능 양분하고 기업통합과 협동통합이 상호 경쟁하는 능률적 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계열주체의 등장과 소멸, 통합체제간의 통합합 및 사육주체의 정착 실현을 경험할 것이고 요즈음 시행하고 있는 사ibi 부분통합은 저절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일부 사육자는 독자경영체로 잔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완전통합산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여러 체제가 공존하면서 상호보완, 선의경쟁하는

산업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예상문제점

통합추진과정상의 많은 예상 문제점은 금후 그 대부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풀려 나갈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지식수준으로 보아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 생존하는 책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 합리성에 대한 추종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초기의 문제점들, 즉 새로운 체제에 대한 당사자 및 지원기관의 이해부족, 계약 쌍방간의 상호불신, 사육자의 피동적 자세, 사ibi 부분통합의 사육자 현혹, 비통합 관련업체의 통합방해, 관련기관의 미온적 통합지원 등과 같은 저해요인은 쉽게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추진의 핵심과제와 관련되는 선발 통합주체의 경영미숙 및 위험관리체계 미흡, 기존사육자의 의사결정권 상실에서 오는 잠재적 불만, 사육자가 주도하는 협동통합의 부진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상당한 기간동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 산업발전 주도

통합체제는 앞으로 육계산업의 골격이 되어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그동안 각 부문에 개재하고 있던 수평적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CQC(Cost-비용절감, Quality-상품성 향상, Consumer Satisfaction-소비자 만족) 목표달성에 의하여 국내 소비증가와 외국 수출촉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가격은 금후 다른 식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격등락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통합경영은 규모의 경제, 판매비의 절약, 절세 및 이윤 중심점의 단일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통합경영의 일괄체계는 계속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바 이는 어느 단계의 관리소홀도 결국은 통합주체의 불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수직통합은 소비자를 지향하는 경영체계이다. 따라서 소비자 위주의 가격, 품질 및 기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상표를 선전하여 소비신장을 도모하게 된다.

위와 같은 여건을 갖추게 되면 육계산업은 향후 안정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현재의 통합과정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여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결론

한국육계산업은 바야흐로 완전수직통합을 향하여 구조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세대동안 겪어온 통합을 위한 여러 시행착오와 최근에 엄습하고 있는 국내·외적 여건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 제고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젊은 세대의 의욕적 추진이 통합 전개를 촉진하고 있는 것 같다.

육계산업은 현재 비통합과 부분통합이 주류

를 이루고 일부는 완전통합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나, 비통합은 부분통합으로, 부분통합은 다시 완전통합으로 급속하게 지향하고 있어 산업 전체가 독자경영에서 통합경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많은 저항이 있고 저해요인이 여러 곳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수직통합체계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순조롭게 전개되어 가기 위해서는 통합당사자들의 긍정적 의식과 노력은 물론, 통합지원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자금지원과 산업발전을 위한 수직적 협의조정이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육계산업은 앞으로 완전수직통합이 주축을 이루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수출산업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빠르면 1995년 쯤에 이러한 통합산업의 실체가 가시화되던가, 늦어도 금세기말 이전에는 통합체계가 지배하는 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1. 육계산업계열체계 총점검. 1991.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2. 육계산업의 계열화. 1991. 한국가금학회.
3. 육계산업계열체계발전상황. 1991. 한국가금학회.
4. 생산자단체주도계열화. 1990. 대한양계협회.
5. 육계계열화의 현황과 문제점. 1989. 대한양계협회.